금주의 법구-〈정법염처경〉
게을러 헛되이 살면
미래세상에도 헛되어
열반을 얻지 못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2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7호 2017년 3월 1일 수요일

불교 항일인사 조명 재정·인력난에 '난항'

2년 남은 3.1운동 100주년, 불교 사업 안보인다

불교계가 항일인사 재조명을 위한 사업에 본격 나선지 약 1년이 지났다. 3.1운동 100주년까지 2년이 남았지만, 재정 · 인력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범불교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해 3월 '3.1운동과 불교계의 독립운동' 주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항일인사 재조명에 나섰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와 연구소장 법안 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최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연구소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계획은 △학술연구(연2회 세미나 · 연말 논문집 발간) △인물 · 지역 · 사건별 항일운동 자료집 발간 △호국불교사찰 자료집 발간 등이다.

하지만 정작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계획대로 실행될지 미지수다. 올해 연구소가 책정한 사업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6000만원이다. 연구소 측은 "현 예산으로는 해외소재 자료 수집과 번역 · 출판 작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연구소는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국고보조사업인 '호국불교연구 및 서산대사 제향'의 증액사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천도교가 주도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불교 · 천도교 · 개신교 3대종교 공동자료집 편찬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인물단체연구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자료집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 성격이 호국불교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증액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기존 보조금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월 22일 열린 연구위원회의서 항일운동을 펼친 각 교구본사에 재정적 협조를 구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연구소가 직접 나서 제안하기는 부담스런 모양새다.

이뿐만 아니라 인력난도 3.1운동 기념사업의 걸림돌이다. 최대 7명의 연구원이 활동했던 불교사회연구소는 현재 3명뿐이다. 게다가 연구소장 법안 스님이 사의를 표명하고 2월 말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밝혀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불교사회연구소장은 3대종교 공동자료집 공동편찬위원장이기도 하다. 물론 연구소가 백년대계본부에 통합되면서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연구소장을 겸직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일감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돼 업무과잉이 예상된다.

지난해 초 발기인대회를 마친 항일독립운동불교선양사업회(대표 조환기)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이었던 독립운동의 근거지 호국사찰 '고성 옥천사'에 대한 조명은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연구좇 조직 · 계획 수립 등 의지 높지만, 대중 관심 無

3.1운동 사업 천도교 주도 개신교도 자료집 발간 앞둬 "교구본사부터 관심 가져야"

전문가들은 불교계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구를 위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자칫 동력을 잃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불교계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식 특임교수는 "과거 만해 · 용성 스님 추모법회에 조계종 지도자급 스님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3.1운동 관련 불교계 행사가 그동안 없었기에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각 교구본사부터 관심을 갖고 100주년에 맞춰 연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美 아이스댄싱 대표 "사찰음식 NO.1!"
2월 20일 서울 안국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서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과 함께 한국 사찰음식 체험에 나선 미국 아이스댄싱 대표 마이아 시부타니(사진 가운데)와 알렉스 시부타니(사진 왼쪽) 남매가 사찰 음식을 맛보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시부타니 남매는 약 2시간 동안 김치 떡볶이, 된장 야채볶음, 간장 버섯잡채를 만들고 직접 시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불교대학 졸업 제대로 인정받아요"

조계종 포교원, 불교대학 학사일정 개편키로

서울의 한 불교대학에 다니는 김모씨는 올해 1월 당황스런 일을 경험했다. 불교대학 2년 과정을 모두 이수했지만 졸업이 아닌 수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신도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2016년 신도등록 발급기한은 11월 30일로 이미 지난 상태. 김모 씨는 난감함을 감출 수 없었다.

신도등록 미비로 인해 해마다 2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불교대학 수료 신분을 받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대학 학사일정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7신도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 학장회의를 개최하고, 신도등록 미비로 졸업 불가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졸업보고 시기를 2월 졸업식 전, 11월에 완료하도록 했다.

2016년 불교대학 졸업보고 기한은 올해 1월 20일까지였으며 수료자는 256명이었다. 4300여 전체 졸업자에 비하면 6% 수준에 불과하지만 포교원 측은 불교대학 졸업보고 시 신도등록 미등록자는 자체적으로 제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수료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파악, 이를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2월 21일 학장회의서 밝혀 졸업 보고, 11월 완료키로 학사보고 누락 방지 효과

포교원 관계자는 "불교대학별 행정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사보고 조차 당초 정해진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11월 졸업보고로 당김으로써 보고 누락을 방지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있는 신도등록도 함께 진행해 이로 인한 수료 전락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불교대학 측 행정을 고려해 기존 9월에 진행 중인 2학기 학사보고는 11월 졸업보고에 통합하기로 했다. 포교원의 11월 불교대학 졸업보고 조치로 인해 그동안 있었던 포교사 고시 확인절차도 보다 간소화 된다. 포교사 고시 서류접수 마감이 불교대학 졸업보고 기한보다 앞서, 그동안 불교대학과 포교원의 이중 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포교원은 기존 불교대학 외 사찰 신행불교대학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령에 따르면 포교원은 포교원회의 의결로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신행불교대학은 기존 2년제 불교대학과 달리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며 인가일로부터 2018년 6월까지 운영된다. 이에 대해 기존 불교대학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행불교대학 차주상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제14대 종정 진제 스님 추대법회

오는 3월 27일 서울 조계사서



조계종 제14대 종정으로 재추대된 진제 스님〈사진〉의 추대법회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오는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진제 스님 제14대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 원로 및 중진 스님과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제 스님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종정 추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종정으로 재추대됐다.

향곡 선사의 법맥을 이은 진제 스님은 평생을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매진했다. 스님은 1998년과 2000년 백양사에서 열린 무차선대법회에서 초청 법주를 맡았으며 2009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백고좌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을 계승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제13대 종정 취임 후 간화선 부흥을 위해 2015년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만 불자가 참여한 간화선 무차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진제 스님의 임기는 3월 26일부터 5년 간이다.

신성민 기자

Fact Check Q&A – 서산 부석사 관음상 환수인가 도난인가 A5면

www.unjusa.com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